10.15686/fkl.2024..63.43 OPEN ACCESS

아우구스트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를 둘러싼 번역 실천과 젠더 역학

김미지
단국대학교 국문과 부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복수의 번역본, 미완과 은폐의 번역 실천
3 남성 지식인들이 전유한 『부인론』과 불화하는 연대
4 결론

국문초록

동아시아에서『부인론』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아우구스트 베벨의 저서『여성과 사회주의』는 1879년 처음 나온 뒤로 수십 년 간 거듭 개정판이 발간되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된 사회주의의 고전이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 중반에 공산주의자 배성룡과 아나키스트 신종석에 의해 각각 원저의 2부(현재의 여성)와 1부(과거의 여성)가 차례로 발췌 번역된 이래, 1990년 최초의 완역본이 나오기까지 총 아홉 번의 번역 시도가 있었다. 이들은 번역의 저본이 되는 일역본 및 중역본 그리고 영역본과 상호 텍스트적 관계를 갖는 한편, 완역의 형태를 갖지는 못했으나 검열의 시대를 통과하며 수행된 그 나름의 번역 실천을 보여준다. 한편 1920년대 초에서 30년대 초까지 이 책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쓰인 여러 파생 텍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외 없이 남성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쓰인 이 글들은 일부일처제와 매음(매매혼) 문제에 특히 편중된 주제의식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들은 여성 혐오와 시혜적인 입장을 노출하기도 하는 등 조선 여성이 처한 구조적 문제 및 자본주의 하의 젠더 모순에 육박하지는 못했다. 이 책이 당대의 여성 독자들 및 여성 지식인들에게 해방의 교과서처럼 거론되었음에도 실제로 진지한 접근이나 해방 담론이 충분히 펼쳐지지 못했던 것은 조선 여성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되비쳐주고 있다. 일본의 선구적 여성 사회주의자로 동아시아에서『부인론』을 처음 완역한 야마카와 기쿠에가 조선 여성에게 내민 연대의 손길조차도 일본 무산계급 운동에 조선여성이 포섭되는 방식으로만 승리(해방)가 가능하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년 전에 이루어진 불완전한 번역 실천과 연대의 시도들은 현재까지도 물음을 그치지 않아야 하는 문제들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문핵심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번역 실천, 검열, 부인론, 배성룡, 신종석, 야마카와 기쿠에

1 들어가며

채만식이 1933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소설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는 주인공 임노라가 『부인론』이라는 책을 사회주의자 병택으로부터 건네받아 읽는 장면이 등장한다. "파르스름한 포장을 한 사륙판의 조고만한", 그러나 꽤 두꺼운 이 책은 바로 "베-벨의 부인론"이다.[1]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의 '집 나간 노라'에서 모티프를 얻어 '조선판 노라'의 후일담을 그린 이 소설에서 노라는 집밖에서 마주치게 되는 혹독한 시련들을 겪어나가며 점차 노동자로 각성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마주친 책이 베벨의 『부인론』이었다. 노라는 "군데군데 붉은 연필로 언더라인이 치어"있는(책을 건넨 주의자 병택이가 남긴 흔적일) 이 책을 읽어보려 서문을 붙잡고 한참을 씨름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워 무진 애를 먹는다. 여기서 사회주의자 또는 사회주의 입문자의 필독서로 암시되어 있는 베벨의 『부인론』 즉 *Die Frau und der Sozialismus*(『여성과 사회주의』)는 1879년 독일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전 세계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리만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었다.[2]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 노라가 손에 쥔 책은 '파르스름한 포장을 한 사륙판'이라 묘사되어 있는데, 1930년대 당시 조선에는 영역본, 일역본 뿐만 아니라 조선어 역본, 중국어 역본이 모두 나와 있었다. 뒤에 자세히 밝히겠지만 1920년대 사회주의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 서적의 홍수 시대에 다른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베벨의 이 책 또한 일찍이 한중일에서 앞 다퉈(더 정확히 말하면 연쇄적으로) 번역 출간된 바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콜론타이의 『붉은 연애』[적연赤戀]나 엘렌 케이의 『연애와 결혼』 등의 저작들이 당시 남녀 학생

1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一名노라의後日譚)」 34회, 『조선일보』, 1933. 7. 1. 이 소설은 『조선일보』에 1933. 5. 27에서 11. 14까지 연재되었다. 1988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된 채만식 전집에서는 『인형의 집을 나와서』라는 연재본 제목으로 나왔고,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저자의 육필 수정본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가 2009년 '저자 교정본'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예옥출판사).

2 1879년 처음 옥중 출판 또는 비밀 출판했을 당시는 판본 당 2500부씩 인쇄했는데 훗날 베벨이 사망한 1913년 이전 최고 인쇄 부수는 14만 부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및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연애 지침서 또는 성적 해방의 교과서로 받아들여진 것은 잘 알려져 있고 그만큼 수도 없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3] 베벨의 이 저작에 대한 연구나 한국에서 번역 수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4] 콜론타이의 책이 1923년 러시아에서 출간된 뒤 '혁명적 연애론'으로 널리 확산된 것에 비할 때 그보다 거의 반세기 전인 19세기 말에 나온 독일 '남성' 지식인 베벨의 책은 일찍이 '고전'의 반열에 올랐을지언정 당대적 시효성과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리라는 점도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1920년대가 사회주의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소위 '연애'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이 경합하던 시대라는 점에 비춰보면, 동지적 사랑과 성적 해방으로서의 연애를 앞세운 콜론타이의 책이 갖는 시대적 의의가 더 직접적이고 폭발적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남성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했던 맑스주의적 여성론의 초점이 결혼에 맞춰져 있었던 데에 반해 콜론타이의 그것은 연애와 성도덕에 있었다는 점에서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고[5] 이 역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환영받았던 이유였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콜론타이의 『붉은 연애』가 당대에 조선어로 번역된 적은 없었고 일역본

3 콜론타이의 국내 수용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서정자, 「콜론타이즘의 이입과 신여성기획」, 『여성문학연구』 제1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김은실,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여성해방론: 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권 2호,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2004;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 『러시아연구』 제18권 2호,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2008; 배상미,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3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노지승, 「식민지 시기 콜론타이즘 수용의 유산들」,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3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22; Urvantseva, Ekaterina, 「1920~30년대 콜론타이 연애론에 대한 담론 연구: 조선과 일본의 담론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한편 여성 사회주의자 정칠성을 논하며 베벨의 영향력을 언급한 것으로 박순섭, 「1920~30년대 정칠성의 사회주의운동과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제26호, 한국여성사학회, 2017이 있다.

4 채만식의 작품과 베벨의 『부인론』을 연관시킨 논문이 하나 있는 정도이다. 소산산,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와 『부인론』의 관련양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이 글은 채만식이 '동반자 작가'로서 베벨의 『부인론』의 영향 하에 조선에서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의 실현 가능성을 소설 속에 구현한 것으로 파악한다.

5 김경일, 「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한국문화』 제36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5, 285-6쪽 참조.

(『赤い恋』)으로 또는 풍문으로만 떠돌았다.[6]

특기할 만한 것은 1920년대 이후 한국에서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를 번역하거나 소개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1925년과 26년에 배성룡, 신종석에 의해 두 종류의 번역 단행본이 연이어 등장했고, 1932년에는 잡지 『동광』에 일부분이 번역 게재되었다. 그리고 해방 직후 1946년에 김삼불(金三佛)에 의해 『부인론』이라는 제목의 상하 두 권이 출간된 바 있다. 일역본 도서들의 서적 광고가 당시 국내 신문지면에 버젓이 등장하던 시기,[7] 하나의 조선어 번역본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연달아 번역이 시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이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의 명성과 아울러 사회주의 서적 출판의 유행, 독자층의 증가라는 현상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접근이 그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번역이 사회주의 및 여성해방 서적의 번역 출판 그리고 수용의 맥락에서 갖는 의의를 고찰해 봄직 하다.

우선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는 원저인 독일어판 자체가 베벨의 사망(1913) 전까지 약 삼십여 년에 걸쳐 수도 없이 개정되고 증보되어 수십 종의 판본이 존재한다. 베벨이 옥중에서 쓰기 시작한 원고가 점차 확대되어 완성판(25판)이 나온 것이 첫 출간으로부터 십여 년 뒤(1895)의 일이었다.[8] 여기에는 비스마

6 일역본은 コロンタイ, 松尾四郎 訳, 『赤い恋』, 世界社, 1927. 이 책의 한국어 역본이 나온 것은 2013년으로 『붉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콜론타이, 정호영 역, 『붉은 사랑』, 노과사연, 2013.

7 예컨대 엥겔스의 저작으로 堺利彦(사카이 도시히코)가 번역한 『社會主義の發展』(白楊社)은 1920년대 말부터 꾸준히 『동아일보』 지면에 대대적으로 광고가 실려 있다.

8 그간 밝혀진 출간본들의 서지를 바탕으로 원저의 판본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년도	제목	출간 사항	비고
1	1879	*Die Frau und der Sozialismus* (여성과 사회주의)	〈엥겔스, 통계, 제5호〉라는 위장제목으로 출간	출판 금지
2	1883	*Die Frau in der Vergangenheit, Gegenwart und Zukunft* (과거, 현재, 미래의 여성)	2차(3차) 개정판	출판 금지

르크 시대 '사회주의 진압령'으로 인해 수없이 금지 및 압수당하면서 위장 제목을 내세우기도 하고 비밀 출판되기도 하는 등의 사정도 있었다. 게다가 수많은 언어의 역본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다는 점도 저본(들)과 역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큰 난점으로 작동한다. 일찍이 독일어 원본들과 일역본 및 중역본의 서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논문이 일본에서 나온 바 있어, 일역과 중문역 사이 텍스트의 번역과 출판을 살피는 데에 참고할 만하다.[9]

이 글에서는 우선 그동안 한국어 번역본들에 대한 파악이 시도되지 않았던 만큼 각각의 번역들을 둘러싼 기본 사실들 즉 역자, 저본, 역본의 특징, 출간 사항 등을 일차적으로 파악해 보고, 각각의 시도들이 갖는 특징과 의의 그리고 당대 사상계나 독서계에 수용된 양상과 맥락을 재구성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사실 1980년대 이전까지 이 책의 한국어 완역본은 나온 바 없는데, 대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번역물 자체라기보다 다양한 버전의 '번역 실천(translation practice)'[10]이었다. 당대의 동아시아 서적 출판 시장 그리고 문학 장에서 번

3	1886	과거, 현재, 미래의 여성	4차 개정판	2500부 인쇄
5	1891	여성과 사회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여성)	9차 완전개정판, 10차 개정판	문체 변경 및 추가
6	1893	여성과 사회주의	17차 개정판	7만부 인쇄
7	1895	여성과 사회주의	25차 기념판(완성판)	자료 및 부록 추가
8	1902	여성과 사회주의	33차(34차) 개정판	마지막 문장 추가
9	1910	여성과 사회주의	50차 기념 개정판	수정개편, 표지교체
10	1913	여성과 사회주의	총 15개 언어로 번역	2부 7장 →15장으로

9 伊藤セツ, 王宓, 「20世紀初頭欧米女性解放思想の日本・中国への伝達の過程: August Bebel: Die Frau und der Sozialismusの場合」, 『昭和女子大学大学院生活機構研究科紀要』 第8號, 1999. 본고에서도 역본들 사이의 비교를 위해 판본 정리를 일부 시도할 터이지만,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판본들에 대한 세밀한 정리와 목차 비교, 저본 확인 등은 이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10 번역을 단지 언어 간 변환 작업이 아닌, 사회적이고 물질적으로 매개된 실천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aeve Olohan, *Translation and Practice Theory*, Routledge, 2020. 이 저작은 번역가의 작업을 지식 노동의 일환으로 보고 그 사회학적 조건들을 탐색한 것이다.

역의 제국이기도 했던 일본의 번역물들(완역본)이 미친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해지는 것은 번역된 결과물의 수준이나 완성도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며 또 상호 관련되고 앎의 형성을 촉진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여성과 사회주의』의 번역은 동시대 대부분의 조선어 역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역(重譯)이라는 맥락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일본과 달리 전적으로 남성 지식인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가 번역된 배경과 조건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가능했던 상황과 맥락 자체도 고찰해 볼 만한 문제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대의 여성해방론,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담론의 생성과 확장에 어떤 기여를 했으며 또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가 하는 점일 터이다. 이는 번역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또는 전후로 한 파생 텍스트 또는 수용자의 반응과 담론장 내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고찰해야 할 문제이다. 사실상 남성 원저자와 남성 번역자 그리고 남성 수용자(일부 여성 수용자)로 이어지는 번역과 수용의 맥락에서 과잉되거나 억압된 지점은 없는지 또한 첨예한 쟁점들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번역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번역 실천에 관여한 젠더 역학까지 가능한 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복수의 번역본, 미완과 은폐의 번역 실천

독일 사회민주당의 당수 베벨이 옥중에서 쓴 『여성과 사회주의』는 1879년 처음 세상에 나온 당시에는 검열을 피해 원제를 숨긴 채 『엥겔스, 통계, 제5호』라는 위장된 제목으로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그럼에도 책은 나온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출판 금지되었고, 제2판은 또 다른 위장된 제목, 즉 잘 알려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여성*Die Frau in der Vergangenheit, Gegenwart und Zukunft*』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이 역시 곧바로 출판 금지되었다). 원래의 제목인 『여성과 사회주의』를 되찾은 것은 독일에서 '사회주의자 진압법Sozialis-

11 Heinrich Gemkow, *August Bebel*, Leipzig : Bibliographisches Institut, 1986, p.54.

tengesetz'이 폐지된 뒤인 1891년 제9차 완전 개정판이 나오면서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태생에서부터 검열과의 숨바꼭질 속에서 탄생하고 생명을 부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언어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목만 해도 통일되지 않은 채 매우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역본으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인 배성룡이 펴낸『부인해방과 현실생활』(조선지광사, 1925)이다. 배성룡은 1920년대 초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었던『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있으면서「사회변혁과 사상적 고찰」,「농민운동의 현재 급 장래」등을 장기 연재하며 언론인으로서도 수많은 글을 쓴 인물이다. 그는 일본 니혼대학에서 유학한 뒤 기자생활을 거쳐 제2차 조선공산당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데,[12] 그 시기 직접 번역 및 발행한 책이『부인해방과 현실생활』이었다. 그는 1925년 책을 출간하기 전 1924년 1월 초부터 약 두 달여에 걸쳐『조선일보』지면에 책의 일부분을 산발적으로 번역 연재한 바 있다. 연재 당시의 구체적인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베펠 부인론의 서론」,『조선일보』, 1924. 1. 6.~9. (1)(2)(3)(5) ((5)는 (4)의 오식)
「성적 존재와 현대부인」,『조선일보』, 1924. 1. 10.~14. (1)~(5)
「현대의 성적 결합」,『조선일보』, 1924. 1. 15.~21. (1)~(7)
「결혼과 이혼의 현실문제」,『조선일보』, 1924. 1. 22.~29. (1)~(8)
「여성의 생활수단과 결혼」,『조선일보』, 1924. 1. 30.~2. 3, 2. 5~2. 11 (1)~(12)
「여성의 과잉과 결혼의 기회-베펠에서」,『조선일보』, 1924. 2. 19~25 (1)~(7)

12 배성룡의 인적 사항과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이공순,「[발굴 한국현대사 인물69] 배성룡」,『한겨레신문』, 1991. 5. 31. 한편 배성룡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는 다음이 있다. 유찬근,「'합리성'의 합리화와 지식인의 생존전략 : 배성룡, 근현대 지식인의 '주변적 전형'(1922~1957)」,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김기승,「裵成龍의 政治.經濟思想硏究 : 民族協同戰線論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이 연재물들에는 역자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베벨이 원작자라는 사실도 처음과 마지막 연재분의 제목에서 외에는 밝혀놓고 있지 않다. 단행본『부인해방과 현실생활』의 표지에도 저자와 역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책의 마지막 판권지에도 배성룡이라는 이름은 '편집자 겸 발행인'으로만 기입되어 있다. 역자는 이 책의 '서언(序言)'에서 내용 상당 부분을『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사실을 밝히고, 베벨의『과거현재급미래의 부인(過去現在及未來의婦人)』을 발췌 초역(抄譯)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 놓았다.[13] 여기서『過去現在及未來의婦人』이라는 제명의 책은 한중일에서 존재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베벨의 2판 제목인 *Die Frau in der Vergangenheit, Gegenwart und Zukunft*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1903~4년에 이 독일어 제목의 영문 버전인 *Woman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가 사회주의 단체 '평민사'의 기관지『평민신문(平民新聞)』에 처음 소개되었고 부분 번역되었다.[14] 뒤에 살피겠지만 이 2판의 제목을 차용하여 나온 이후의 일역본들은 '婦人の過去・現在・未来'라는 제목을 공통적으로 달고 있다.

배성룡은 이 책이 "세계적 명저라는 세계적 정평이 잇는 걸작물"로서 "부인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세상의 이해를 더욱 심화 촉진함에 호대(浩大)한 공효(功效)를 낏친 대기록"이라는 점을 첫머리에 내세운다.[15]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선 여자들"의 지능, 지위, 생활, 환경이 저열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사상 방면이 맹목적인 경역을 버서나지 못한 이때" 자신의 번역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닐" 것이라 주장한다.[16] 연재본과 단행본에 나타난 역자의 변을 통해 볼 때 이 책을 번역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이 책이 '부인문제에 관한 세

13 "본책자에 수록된 논문은 독일인 '베-벨'의 저작한『過去現在及未來의婦人』이라는 책자중에서 몃가지를 임의로 취사선택하야 抄譯한것인대 그대부분은 이미 작추(昨秋) 이래 신문『조선일보』지상에 연재한 것이다."「서언」, 배성룡 역,『부인해방과 현실생활』, 조선지광, 1925, 1쪽.

14 자세한 서지 내용은 伊藤セツ, 王宓, 앞의 글, p.35 참조.

15 연재 당시 첫머리에 쓴 역재의 변은 다음과 같다. "베뻴의 부인론은 세계의 부인에 관한 저서 중에 가장 저명한 명저라 한다. 따라서 그 관찰이 그만치 충실하고 그 내용이 그만치 철저하다. 이에 역재하는 글은 그 부인론의 서론이다. 또 이외에도 각장을 따라 현대의 조선 신여자에게 참고될만한 각장을 발췌하야 계속 역재코저 한다(역자)."(「베뻴 부인론의 서론」,『조선일보』, 1924. 1. 6. 1면)

계적인 명저'라는 점, 다른 하나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조선의 신여자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는 점이다. 검열을 의식한 탓이겠지만 '사회주의적 여성론'이라는 흔적은 전혀 비치지 않고 있다. 이 역본은 총 4부(1.과거의 여성, 2.현재의 여성, 3.국가와 사회, 4.사회의 사회화)의 30장으로 구성된 베벨의 완성판『여성과 사회주의』가운데 9개의 장만을 선택하여 편성해 놓은 것이다.

역서의 제1장 '부인문제개론'은 베벨 원저의 '서문'을 초역한 것이고 마지막 제9장 '미래사회부인론'은 원저 제4부 28장 '미래의 부인'을 가져온 것이다. 제2장에서 8장까지는 원저의 2부 '현재의 여성'을 구성하는 총 9개의 장 가운데 '가족의 붕괴'와 '매음' 두 부분을 제외한 일곱 개의 장을 순서대로 엮어놓고 있다.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4부에 속하는 '미래사회의 부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베벨의 원저 가운데에서도 가장 나중에 쓰인 것으로, 도래할 사회주의 시대의 여성해방을 전망하는 내용이기에 검열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번역본들에서 역시 제4부를 대부분 삭제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배성룡과 마찬가지로 번역자 겸 발행자로 이름을 올린 신종석의『과거사회와 부인』(춘추각 출판사, 1926)은 제목에서 나타내듯이『여성과 사회주의』의 제1부 즉 '과거의 여성'만을 번역(발췌 초역)한 것이다. 역자 신종석은 '머리말'에서 저본이 무엇인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역과 영역[17]을 대조하여 번역"

16 현재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이 책은 서문 대부분과 목차의 첫 페이지가 낙장으로 누락되어 있어 서문에서 번역의 저본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책에는 경성도서관 본관의 직인과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

17 영역본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년도	역자	제목	출판사	저본
1	1885	H. B. Adams Walther	*Woman: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Modern Press, London	
2	1886	H. B. Adams Walther	*Woman: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J. W. Lovell Co., New York	
3	1893	H. B. Adams Walther	*Woman: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illiam Beeves, London (개정판)	
4	1904	Daniel De Leon	*Woman under Socialism*	New York Labor news company	33(34)차 개정판

했다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역자는 이 책을 어떤 동기와 이유로 번역한 것일까. 다음은 번역자가 이 책을 "세계에 유가 드문 명저"라며 밝힌 번역의 변이다.

> 外譯이라하야도 一語一種에 止치 아니한다. 일례를 보더라도 영역은 오륙종이 잇다 하며 일역으로도 수삼종이 잇는듯하다. 엇쨔든 세계문명족의 언어문자가 잇는 수대로는 번역되고 오직 우리의 말이 그 가운데에 빠짐을 좀 북그럽게 생각하야 충분치 못한 역이나마 此를 간행하는 바이다.[18]

세계적 명저로 널리 알려져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역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본은 5~6종, 일역본도 수삼종이 있는 마당이라는 것, 우리의 말이 그 가운데 빠진 것은 '세계문명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역자는 지적한다. 이 책이 '부인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숙고'함에 있어 '경전'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명족의 언어를 가진 우리로서 그 번역의 대열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자가 '하나의 언어 다종의 번역'이라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번역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이 역본은 배성룡의 선행하는 역본과 전혀 겹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 밝힌 바대로 2부인 '현재'를 소개한 배성룡의 역본과 1부인 '과거' 편을 가져온 신종석의 역본은 한데 합쳐질 때 베벨의 원저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화요파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던 배성룡의 경우 남긴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남한에서 또한 문필활동을 계속했기에 행적이 잘 알려진 편에 속하는데, 신종석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그는 "1920년대 후반에 춘추각출판부의 대표(발행인)로서 바쿠닌,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번역, 출판한 아나키스트"[19]로, 일찍이 1920년부터 잡지 『서광』

5	1910	Meta Lilienthal Stern (Hebe)	*Woman and Socialism*	Socialist Literature Co., New York	50차 개정판 공인 번역본

18 신종석, 「머리말」(역자 서문), 베벨, 신종석 역, 『과거사회와 부인』, 춘추각출판부, 1926. 1쪽.

의 편집 실무자로서 사회주의 아니키즘 방면의 활동가이자 이론가로 활약했다.[20] 그리고 또 확인되는 것은 1930년에 작가이자 언론인인 전무길이 펴낸 잡지 『대조(大潮)』에 필자로 몇 차례 참여했다는 점인데, 여기서도 그는 「생존상의 부조적(扶助的) 원칙」(5호), 「사회병리관견(社會病理管見)」(6호)과 같은 글을 통해 아나키즘적 지향을 보인 바 있다. 같은 지면 창간호에 「직업부인의 가정문제」(1호)와 같은 여성 관련 글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베벨의 이 책을 번역한 것이 같은 흐름에 있음을 알 수 있다.[21] 고향이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없지만 황해도 평산군 한포 곡물조합 임원 명단[22]이나 한포의 야학 후원회 명단 등에서 '신종석(愼宗錫)'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전무길과 같은 황해도 출신으로 추정된다.[23]



그림 1. 배성룡 역,
『부인해방과 현실생활』(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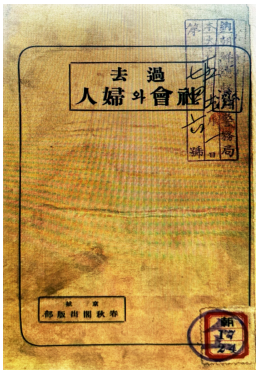


그림 2. 신종석 역,
『과거 사회와 부인』(1926)

19 박종린,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社會改造の諸思潮』의 번역」, 『역사문제연구』 제20권 1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20 김현주·조정윤, 「《신생활》 이후의 신생활사—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계열 대중출판운동의 편린」, 『大東文化硏究』 제120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2.

21 이밖에도 1919년 창간된 한성도서의 잡지 『서울』 창간호의 '부인란'에도 '신종석 역'으로 독일 여성의 상황(저자 불명)에 관한 글을 수록한 바 있다.

22 「새로히 조직된 한포곡물조합 신임원선정」, 『조선중앙일보』, 1933. 5. 21.

23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전무길의 잡지 『대조』가 황해도 출신 인사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대조』 및 전무길과 황해도 인사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미지, 「재북(월북) 작가 전무길(全武吉)과 식민지 시기 언론·문화 네트워크」, 『구보학보』 제29집, 구보학회, 2022 참조.

1925~6년에 걸쳐 이 두 종의 역본이 돌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1920년을 전후로 일본에서 여러 번역자들에 의해 번역의 시도들이 이어졌고 특히 1923~5년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栄)의 완역본『부인론』이 등장한 것을 중요한 배경으로 들 수 있다(아래 표 〈다〉 참조). 그런데 이 조선어 역본들은 일역본에서 통용된 제목인『부인론』을 내세우지 않고 원저의 제목은 물론 일역본의 제목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이는 이 책들이 완역본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은폐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시의 사회주의 서적들에 행해진 검열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두 책이 모두 베벨이 그랬던 것처럼 표면에 '사회주의'라는 말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더구나 두 책 모두 책의 표지에 베벨의 저서라는 점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책 내부의 서문이나 본문을 통해서만 저자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1920년대에 '사회주의'를 표제에 포함한 책들이나 글들은 무수히 많았고, 이는 신문잡지의 기사들뿐만 아니라 '신간소개'나 '광고'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의 본래 서명인 '여성과 사회주의'가 명시되어 출판된 경우는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심지어 완역본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베벨의 이 책은 적지 않은 이명(異名)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음 표 〈가〉, 〈나〉, 〈다〉는 한, 중, 일 번역본들의 서지 사항과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번역의 저본 표시는 각 번역서의 역자 서문이나 역자 후기를 통해 확인한 것들이다.

	년도	역자	제목	출판사 (발표지)	구성	저본
1	1924	배성룡	「베펠 부인론의 서론」 外	『조선일보』	초역(抄譯) 연재	
2	1925	배성룡	『부인해방과 현실생활』	조선지광	2부의 9장, 초역	
3	1926	신종석	『과거사회와 부인』	춘추각 출판부	1부 총 15장, 초역	영역,일역
4	1932. 1	미상	「職業으로서의 結婚」	『동광』 30호	1부의 8장 1절	중문역(?)
5	1946	金三佛	『부인론』 (상, 하)	민중서관	발췌역	1903영역

6	1982	선병렬	『여성과 사회: 과거 현재편』	한밭출판사	제1, 2부	
7	1987	이순예	『여성론』	까치글방	제1, 2, 3부	독어50판
8	1988	정윤진	『여성과 사회』	보성출판사	제1, 2부	6과 동일[24]
9	1990(95)	이순예	『여성론』	까치글방	완역본 (최초)	

〈가. 한국어 번역본〉

	년도	역자	제목	출판사(발표지)	비고
1	1920	李汉俊	《女子将来的地位》	《新青年》第8卷第1号	
2	1927	夏衍(沈端先)	《妇人和社会》	开明书店	제50판 일역본
3	1929	高聖希	《倍倍尔的妇女論》[25]	《泰東月刊》1月	重譯, 抄譯
4	1949	沈端先	《妇人与社会主义》	开明书店	
5	1955	沈端先	《妇女与社会主义》	三聯書店	영역대조
6	1995	葛斯、朱霞	《妇女与社会主义》	中央编译出版社	독일어판 완역

〈나. 중문 번역본〉

	년도	역자	제목	출판사	비고	저본
1	1919	村上正雄	社会主義と婦人	東京 三田書房	14장 구성	영역본, 과거편
2	1923	牧山正彦	現代の婦人 上,下 (婦人と社会主義)	京都 弘文堂書房	第1編 1922, 第2,3編 1923 第4編 1924	제50판 독어본

24 1982년과 1988년에 나온 두 번역본 〈가-6〉과 〈가-8〉은 1부(과거)와 2부(현재)만을 번역한 것으로 역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판형과 번역문, 서문 및 페이지까지 완전히 같은 동일본이다.

25 이 역본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앞서 소개한 伊藤セツ, 王宓(1999)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도 미확인으로 되어 있다.

3	1923	山川菊栄	婦人論：婦人の過去・現在・未来	東京：アルス		제50판 영역본
4	1925	山川菊栄	婦人の過去現在未来	長崎村(東京府)出版社, 世界文献刊行会	世界婦人文献;第7巻	
5	1927	加藤一夫	婦人論	東京：春秋社	世界大思想全集 第33集	제50판 영독 대조
6	1928	山川菊栄	婦人論：婦人の過去・現在・未来(上,下)	東京：アルス		
7	1928	草間平作	婦人論 (上,下)	岩波書店	岩波文庫；395-399	
8	1929	山川菊栄	婦人論	改造社	改造文庫；第1部 第15篇	
9	1952	草間平作	(改訂版)婦人論(上,下)	岩波書店		

〈다. 일문 번역본〉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사회주의 서적으로서도 여성해방론으로서도 이례적으로 많은 판본 또는 이본의 번역본을 낳았다. 일차적으로는 앞서 밝힌 대로 베벨의 원저 자체의 판본이 긴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치느라 오랫동안 확정되지 않았고 검열을 피해 여러 제목으로 출간되었다는 점,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주요한 저본으로 활용된 영역본과 일역본의 판본 역시도 그에 따라 다종 다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책들이 사회주의 검열의 시대를 거치며 일어난 연쇄효과이자 연쇄적 실천의 과정으로서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가-4〉의 부분 번역은 주요한이 주관한 잡지 『동광』의 특성상 중문역의 중역일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 본 결과 샤옌(夏衍)[26]의 중문역(〈나-2〉)을 저본으로(또는 일역 중역 참조) 한 것으로 보인다.[27]

26 5.4 운동 이후 1920년 일본 유학을 떠난 샤옌은 유학 중 마르크스 레닌주의 서적을 탐독하고 수십 편의 번역과 논문을 남겼다. 샤옌의 번역 활동과 중국 문학 및 연극, 영화 운동에서의 활약에 대해서는 郭聪, 严程极,「翻译家夏衍的"译言译行」, 中国社会科学网, 2021年09月20日 참조.
(https://www.zjskw.gov.cn/art/2021/9/17/art_1229556940_40925.html)

일역본이나 중역본과 달리 한국에서 완역본(〈가-9〉)이 나온 것은 1990년에 이르러서의 일이었다. 그리고 최종 완역본의 제목 또한 『여성론』으로, 일제강점기에 통용된 제목 『부인론』과 같은 제호 전략을 따르되 '부인'이 갖는 협소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제목 대신 '여성'으로 제명을 변경하였다.[28] 일본에서는 『사회주의와 부인』이라는 제목의 발췌 번역이 1910년대에 일찍이 나온 적이 있지만 192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 사회주의자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栄)가 『부인론(婦人論)』을 채택한 이후(〈다-3, 4, 6, 8〉) 그 제목으로 굳어지고 널리 쓰이게 된다. 야마카와의 역본은 영어판을 중역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나온 최초의 완역본이었다. 한편 해방 이후 김삼불(金三佛)[29]이 번역해서 나온 『부인론』(〈가-5〉) 역시 이 제목을 따르고 있는데, 이 책은 전체 4부 30장의 체제를 모두 갖추고 있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역시 분량을 축소한 발췌본이라는 점, 역자가 쓴 '서문'에서 1903년 영역본(독일어 33판)을 텍스트로 삼았다고 밝혀 놓았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최종 개정판인 독일어 50판(1910)으로부터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30]

위에서 보듯이 한중일에서 『여성과 사회주의』 번역의 역사는 검열 상황 속의 긴장을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실제로 배성룡과 신종석의 책과 이름 모두 1929년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의 '조선 내 발행 사상관계 서적 목록'에 나란히 등록되었다.[31] 일찍이 완역본이 나온 중국에서도 처음 제목은 『부인과 사회』였으며, 1949년에 이르러서야 『부인과 사회주의』라는 원제에 충실한 제목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栄)의 일본어 완역본

27 이 역문의 비교 검토는 김미지, 「접경의 도시 상해와 '상하이 네트워크'-주요한(朱耀翰)의 '이동'의 궤적과 글쓰기 편력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23집, 구보학회, 2019, 56-60쪽에서 일부 행한 바 있어 이 글에서는 관련 사실을 언급하는 데에 그친다.

28 「역자 후기」, 아우구스트 베벨, 이순예 역, 『여성론』, 까치글방, 1987, 389쪽.

29 金三佛이라는 한자를 쓰는 김삼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해방 이후 학계나 예술계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최순우(국립박물관미술과장), 「澗松故事(간송고사)」, 『경향신문』, 1963. 1. 26. 여기서 필자는 1957년 김삼불이 미국 체류 중 간송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30 「머리말」, 아우그스트 베-벨, 김삼불 역, 『부인론』 상권, 민중서관, 1946, 8쪽.

31 「思潮 - 鮮內 發行의 思想關係 出版物」, 『朝鮮出版警察月報』 第8號, 1929. 5. 1.

들 역시 검열에 의한 복자처리 및 삭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32] 식민지적 검열이 끝나도 냉전 체제 독재정권 하에서의 검열은 유사한 상황을 재연시키는데, 이순예[33] 번역의 두 판본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가-7〉에는 사회주의적 전망을 다룬 제4부가 누락되어 있고, '나머지 제4부도 곧 출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34]는 역자의 후기가 부기되어 있다. 직접적인 검열 상황 또는 출판계에 내면화된 검열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인해방의 성서(聖書)"라고까지 불렸다는[35] 이 책이 당대의 검열을 뚫고 어떤 통찰 또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는지, 서구 지식인 남성 사회주의자의 여성 담론이 당대 조선의 여성 담론 및 해방 담론의 전개에서 어떠한 접속의 지점을 형성하며 담론적 특이성을 낳았는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다.

3 남성 지식인들이 전유한 『부인론』과 불화하는 연대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는 수십 년에 걸쳐 베벨이 수집한 자료들과 사실들이 풍부하게 녹아 있는 기록의 보고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이 과학적 접근이자 학문적 고찰의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당대에도 논란거리였고 늘 비판의 대상이었지만[36] 그의 거칠고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주장과 명제들은 당대 사회주의적 유물론적 여성해방론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참고, 인용, 응용의 대상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식민지 조선에서 논의된 베벨의 입론들은 거의 1920년대 초중반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1920년대 말부터 대대적인 사회주의 사상관계 서적 압수 단속과

32 山川菊栄의 네 종류의 번역 판본을 검토한 伊藤セツ, 王宓, 앞의 글, p.39에 따르면 이 판본들은 베벨의 '서문'을 삭제해 놓았으며 매번 검열과 삭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33 번역 당시 역자는 서울대 독문과 대학원생이었는데, 이후 아도르노, 칸트, 벤야민 등 철학과 미학 분야의 책을 최근까지도 다수 번역했고 현재는 홍익대 독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34 「역자 후기」, 아우구스트 베벨, 이순예 역, 앞의 책, 389쪽.

35 「新刊紹介(신간소개)」, 『조선일보』 3면, 1925. 11. 8.

36 베벨은 동시대 학자들로부터 비과학적 논변이라는 비난을 자주 들었으며 이에 대해 판을 거듭하면서 반박과 보완을 하고 이를 개정판의 서문마다 밝히는 전략을 취한 바 있다.

금지가 이루어졌던 상황과 맞물려 있다.[37] 당대 여성 담론 및 여성해방 담론의 전개 과정에서 베벨을 주요하게 원용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글들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목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필자	제목	발표지면	비고
1	魚秀甲	「一夫一婦制의 역사」	『동아일보』, 1924. 2. 18~25.	
2	미상	「부인운동」	『동아일보』, 1925. 1. 1	
3	박원희	「諸家의 연애관」	『조선일보』, 1926. 1. 16.	
4	양명梁明	「유물사관으로 본 부녀의 사회적 지위」	『신여성』 24,25, 1926. 3~4월호	
5	송양파	「종교와부인」	『조선일보』, 1926. 6. 15.	
6	月下洞人	「미래의 여성」(부인강좌)	『동아일보』, 1927. 9. 8.~10.	대의 요약
7	燕京學人	「매음제도」	『조선일보』, 1927. 9. 29.	
8	고영환	「과거일년 구미정국개황」	『조선일보』, 1929. 1. 1~20.	필자: 경제학사
9	양명梁明	「양성문제 남녀관계의 사적 고찰」	『별건곤』 19, 1929. 2.	
10	李周淵	「부인문뎨강화」 (총37회)	『조선일보』, 1929.10.15.~12.10.	내용 요약
11	朴露兒	「여성공황시대」	『별건곤』 30, 1930. 7.	
12	유상규	「조선여성과 산아제한」[38]	『신여성』, 1932. 3	필자: 의학교수

37 농민조합이나 청년회 회관 수색하여 압수한 책들의 목록을 당시 신문지면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定平農民組合(정평농민조합) 會舘(회관)을또檢索(검색)」, 『조선일보』, 1931.05.20.일자 기사에서는 압수 서적으로 『자본론』, 『사적 유물론 이론』, 『유물사관 연구』, 『자본 축적론』, 『부인에 여할 부인의 해방과 정치』, 『유물사관 해설』, 『제국주의론』, 『예술과 사회주의』, 『부인론』 등의 서명이 거론되었다.

38 이 글은 의사의 입장에서 '빈민 여성들의 산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쓴 것으로 '여성운동과 사회운동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베벨의 문장을 맥락 없이 부당하게 인용한 사례이다.

13	양재하	「세계각국의 이혼법제와 조선이혼법」	『동아일보』, 1933.11. 3.~12. 1	

〈라. 베벨『부인론』관련 파생 텍스트〉

위 목록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글들은 모두 남성 지식인 또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쓰인 것으로, 대체로 결혼제도(일부일처제), 부부관계(양성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라-1〉「一夫一婦制의 역사」의 필자 어수갑(어성룡)은 1920년대『시대일보』기자를 거쳐 화요파 조선공산당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39] 이 글은 모건의『고대사회』, 엥겔스의『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참고하여 원시 가족 형태로부터 현재의 일부일처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요약 제시한 뒤 일부일처제의 문제와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글의 말미에 베벨의 유명한 문장 즉 "압제라는 것이 태고로부터 부인과 노동자가 수(受)한 공통의 운명이엇다", "역사의 시초와 동시에 여자는 노예로 그 생애를 시작하엿"[40]다는 문장을 인용한 뒤, 부권(父權)에 기반을 둔 일부일부제도가 여성의 정복으로 시작하여 이를 고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강조한다. 이 대목은 베벨의 저서 제 1부 1장 '원시사회의 여성의 지위'에 등장하는 부분으로 현대어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 같은 피억압 계층으로서 여성과 노동자의 지위에는 공통점들이 많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성이 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다. '여성은 노예의 일에 종사한 최초의 인간이었다.' 즉 소위 노예제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노예로 존재했던 것이다. 사회적 억압과 종속은 모두 압제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여성이 훨씬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음은 인류사회 진보의 역사가 증명한다.[41]

39 김포 출신인 어수갑은 어성룡이라는 이명을 쓰기도 했는데 한국전쟁기 국군의 서울 수복 이후 부역죄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40 어수갑,「一夫一婦制의 歷史」,『동아일보』, 1924. 2. 25.

41 아우구스트 베벨, 이순예 역,『여성론』, 까치글방, 1987, 16쪽.

베벨의 책에서 여성의 과거를 다룬 제1부는 어수갑의 글에서처럼 모건과 바호펜, 엥겔스 등의 저작들에 기대어[42] 고대로부터 가족 형태의 변화와 모권에서 부권으로의 이행 과정을 논하고 있다. 그런데 어수갑의 글은 베벨의 논의에서 핵심이라 할 '경제적 예속'과 '사유재산제도'의 문제 즉 "부권의 발흥은 사유재산의 지배와 더불어 여성의 예속과 억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는 대목은 제쳐 놓고 문제의 시작과 원인을 단지 '일부일처제'로 환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엥겔스가 일찍이 논한바 '사유재산제-축적과 잉여-계급사회의 등장-남성 지위의 상승과 일부일처제의 발흥'이라는 일련의 논리를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타날 여성해방운동의 새로운 방향이 어떠한 목표로 나아가야 할지를 의문에 부친 채 글을 마무리한다. 이는 검열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으나 여성 문제를 결혼 제도의 문제에 국한시킨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라-2〉의 「부인운동」이라는 짤막한 글은 '여성의 지위상 진보가 없이는 인류의 진보는 절망적이다'라는 베벨의 서문의 한 대목[43]을 인용하며 "진실한 의미의 부인해방운동은 오즉 일반 사회운동과 함께 근본운동에 그 입각과 기초"를 두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는 베벨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의 일반적인 공리이기도 했다.[44] 베벨은 이 대목에서 "남녀평등권 획득이라는 시민계급 여성운동의 목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 한쪽의 성이 다른 성을 지배하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쓴 바 있다. 「부인운동」은 말미에 "조선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만천하의 부인운동이 모다 여사한 경로를 취하여야 맛당히 그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한중일 여성운동의 공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베벨이 말한 '구조적 변혁'을 '근본문제'라는 말로 암시적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이는 베벨이 말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앞서 배성룡의 역본에서 "빈부의 격절"[45]로 순화 또는 축소 번역하고 있는

42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은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 초판이 나오고 5년 뒤인 1884년에 출간되었는데, 베벨은 동시대에 속속 출간된 사회주의자들의 저작과 새로 수집되는 자료들을 계속 추가해 가며 개정판을 거듭 발행했다.

43 '남녀의 평등과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인간해방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순예 역, 앞의 책, 10쪽.)

44 조세핀 도너번,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3, 142-3쪽 참조.

것과 대응된다.

한편 여성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제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남성 지식인들은 결혼제도(일부일처제)와 함께 매음의 문제를 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 때 일부일처제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매수'를, 그리고 매음제도는 여성의 '임시 고용'을 의미한다거나(〈라-2〉), 결혼이라는 제도가 곧 매음제도에 다름없다는 인식으로 나타난다(〈라-7〉, 〈라-10〉). 특히 연경학인[46]의 글(〈라-7〉) 「매음제도」는 모든 것이 매매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누구나 다 매음부가 되지 아니할 수 업다"라고 쓰며 이를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榮)로부터 빌려온 것이라 밝히는데 이는 과장된 표현에 가깝다. 이 대목은 베벨의 책 2부(현재편) 8장 '현대의 결혼'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현대사회가 이전의 어떤 때보다도 더 높은 강도로 결혼을 파괴하는 요소들을 결혼생활 속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볼 일이다.
>
> 오늘날 우리의 결혼은 위험할 정도로까지 물질적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 과거 그 어떤 시대에도 결혼이 오늘날과 같은 파렴치한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시장에서 투기와 단순한 금전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적은 없다.[47]

베벨은 매매혼과 매음의 문제를 특히 '자본주의에서의 결혼과 성적 관계의 타락', '특정 계급의 도덕적 타락'[48]으로 귀결시키고 있는데 「매음제도」는 이를 단지 여성의 정조 유린 문제,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식은 따라서 여성의 몰각성과 무자각을 질타하며 '노예도덕'이라

45 「베뻴 부인론의 서론」, 『조선일보』, 1924. 1. 6.

46 연경학인은 〈라-4〉와 〈라-9〉를 쓴 양명의 또 다른 필명으로 짐작된다. '연경(북경)'이라는 필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명과 비슷한 시기인 1927년 무렵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현대평론』에 사회주의, 여성, 중국과 관련한 글들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47 아우구스트 베벨, 이순예 역, 앞의 책, 128쪽.

48 위의 책, 132쪽.

칭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라-8〉의 고영환[49]의 「과거일년 구미정국개황」이라는 글은 19세기 말 비슷한 시기에 세상에 나온 베벨의 『부인론』과 입센의 『인형의 집』이 미친 '굉장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 저작들은 한편으로는 전 구주(歐洲) 남성의 사상계에 전고미증유의 큰 동요를 일으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양(兒羊)과 같이 유순하야 재래의 편무적(片務的) 도덕(즉 노예도덕)에 만족하던 여성의 각성을 촉진"했다는 것이다.[50] 여기에서 '사상계 남성' 즉 남성 (사회주의) 지식인의 여성해방론이 가진 시혜적인 시각 그리고 이를 남성의 진보성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삼는 편협함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의 태도는 여성들에 대한 '의식적인 선한 의도' 밑바닥에 깔린 '무의식적인 악한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즉 남성 정체성과 남성 지배를 철회하지 않는 한에서의 선함이라는 것이다.[51] 이러한 태도는 〈라-11〉 박노아의 「여성공황시대」에서 "여성의 해방은 오즉 무산자의 해방운동에 의해서만 수행된다"는 문장으로 베벨을 인용하면서 과연 여성들은 "자기가 소속하고 잇는 착취 기관 속에서 자본주를 대립해 나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데에서도 드러나 있다.

남성 지식인의 거침없는 언사는 양명이 쓴 일련의 글 〈라-4〉와 〈라-9〉에서도 발견된다. 양명은 제주도(또는 통영, 거제) 출신으로[52] 1919년 북경대학에 유학한 뒤 1925년 귀국했으며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을 거쳐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인물이다. 1928년 제3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으로 상하이(上海)에 망명한 뒤 줄곧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성의 지위' 그

49 동경 유학생 출신으로 『학지광』, 『현대』, 『문예월간』 등의 잡지에 필진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50 고영환, 「과거일년 구미정국개황」, 『조선일보』, 1929. 1. 17.

51 이종영, 『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2001, 227-232쪽 참조. 여기서 저자는 진정한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성적 지배의 근간이 되는 남성 정체성의 폐기가 필요한데 이는 남성들의 언어와 무의식의 파괴로만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52 그간의 서술들(인물백과사전, 박노자의 『조선 사회주의자 열전』(나무연필, 2021)에서는 그를 통영(거제) 출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당대의 여러 증언들 가운데는 그의 고향이 제주도라고 밝힌 것들이 몇 있다. 관련된 기록은 「현대여류사상가들(3), 붉은 연애의 주인공들」, 『삼천리』 제17호, 1931. 7 참조. 그가 제주의 여성들을 소재로 글에 종종 활용했던 것으로 볼 때 제주 출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예컨대 위의 글 (〈라-8〉).

리고 '남녀 관계'를 논한 이 글들에서 조선 여성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해 매우 적나라하고 신랄한 비평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라-4〉「유물사관으로 본 부녀의 사회적 지위」의 한 대목이다.

>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부녀의 사회적 지위는 남자의 그것에 비하여 심한 차별이 있거니와 금일의 조선에는 특히 이것이 심하다. 첫째로 여자는 법률상에 있어서 미성년자나 또는 금치산자(禁治産者)와 꼭 같은 대우를 받는다. 남편 있는 여자는 남자의 승낙이 없이 남과 계약할 권리가 없고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고 자녀에게 대하여 남편과 동등의 친권(親權)을 행사하지 못한다. (…)
>
> 노예는 해방되고 인신을 매매하는 것은 각국에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분 바르고 기름 바른 아름다운 노예는 도처에서 공공연히 매매된다. 모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경성 시내에서만 1개년에 매매되는 것이 3만 인 이상에 달하고 그를 전업하는 '뚜쟁이'는 약 5, 6백에 달한다고 한다.[53]

양명은 여성의 법률적 지위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등 강한 어조와 표현을 동원한다. 이는『여성과 사회주의』2부(현재편) 제15장 '여성의 법률적 지위'를 염두에 둔 서술이지만 베벨의 문장을 역시 거칠게 다시(고쳐) 쓴 것이다. 베벨은 15장의 1절 '사법상의 평등권을 얻기 위한 투쟁' 그리고 2절 '정치적 평등권을 얻기 위한 투쟁'에서 여성의 법적 권리의 변화와 각 국가에서의 사례들을 세밀하게 비교하면서 권리를 위한 투쟁이 일부(미국 등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양명이 위 글에서 그러한 맥락을 소거하고 여성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적인 상태를 강조한 것은 특히 열악한 '조선 여성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읽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글이 또한 문제적인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결혼문제와 특히 결부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그는 자유로운 결합이 아닌 중매결혼을 곧 매매혼이라고 단정하며 "분 바르고 기

53 양명,「유물사관으로 본 부녀의 사회적 지위」(1),『신여성』제24권, 1926. 3.

름 바른 아름다운 노예는 도처에서 공공연히 매매"되고 있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계급이 계급을 착취하고 성이 성을 지배하는 날근(-낡은) 사회는 영구히 소멸"[54]할 것임을 주장하는 그의 주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글에서 발견되는 여성에 대한 다분히 악의적인 표현은 남성이 성적 표준인 사회에서 혐오의 언어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받아들여짐을 예증한다.[55] 이는 일찍이 1900년대 초 일본의 초기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자 고토쿠 슈스이가 여성을 "남자의 애완물이며 기생충" 상태에 있다고 혹평한 것과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56]

함경남도 단천 출신의 공산주의자로 해방 이후 북한의 부수상에까지 오른 이주연이 연재한 「부인문뎨강화」(〈라-10〉)는 『부인론』을 "가뎡에서 밥짓고 빨내하는 어머니와 누님들이" 쉬는 시간에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의도에서 "늙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태도로" 쓴 것이다.[57] 37회에 걸쳐 『여성과 사회주의』의 1부 과거 편을 매우 쉬운 언어와 경어체로 풀어놓고 있다. 이는 번역과도 다르고 요약이나 논설과도 거리를 둔 '다시 쓰기'의 형태로서 고답적이고 계몽적인 지식인의 어조와 시선을 의식적으로 소거해 놓았다. 베벨을 적극적으로 원용하며 여성해방론을 소개하고 주장하는 이상의 글들은 결혼 제도와 남녀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자각과 각성, 투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분히 '여성들을 가르치는 남성'이라는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58] 그러나 여전히 번역 가능성 또는 그 결과물의 산출이 열악했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춰 볼 때 다양한 형태의 '번역 실천' 또는 현지화의 시도들이 이들을 통

54 양명, 「양성문제 남녀관계의 사적 고찰」, 『별건곤』 제19권, 1929. 2.

55 잭 홀런드, 김하늘 역, 『판도라의 딸들 여성 혐오의 역사』, ㅁ, 2021, 254쪽.

56 천성림, 『산업화가 유교체제하 중국여성의 지위에 미친 영향』, 집문당, 2005, 197쪽. 고토쿠 슈스이는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 여성은 저절로 해방이 된다고 하는 사회주의 일원론에 갇혀 있었고 여자 교육의 목표를 현모양처론 안에서 사고하는 시대적 한계를 노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198쪽).

57 李周淵, 「부인문뎨강화」 (1), 『조선일보』, 1929. 10. 15.

58 천성림은 중국 페미니즘을 탄생에서부터 남성지식인이 주도했고, 사회개조 및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투쟁과 혁명에 동원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천성림, 「구국과 여권 사이에서-중국 페미니즘 100년사」, 『여성신문』, 2017. 7. 23.

해 도출되었다는 점은 곱씹어볼 여지가 충분하다. 문제는 19세기 후반 서구 남성 지식인이 진단하고 전망한 여성의 '현실'이, 수십 년 뒤 조선에서 남성 지식인이 아닌 '여성'들에게 실제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해방의 담론으로까지 확대되기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었다는 점이다.[59] 『부인론』이 당대의 여성 식자층과 여학생들에게 많이 읽힌 책으로 자주 꼽히고(정칠성, 허정숙, 주세죽, 노천명 등) 독서 목록에서 흔히 발견되지만, 많은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노예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베벨의 명제를 동원할 수 있을 뿐이었다.

> 일즉이 베-벨은 말하되「일절 사회의 관계는 경제권 유무에 잇다. 여자는 예로부터 경제적 독입권이 업슨 것이 남성의 노예된 원인이라고」하엿다. 우리는 이 말에 共鳴하지 안을 수 업고 또한 부인할 수 업다.[60]

> 베벨의 부인론에 "부인은 노예 상태에 드러간 최초의 인간이다. 남자의 노예가 아직 생기기 전에 부인은 벌서 노예로 되어 잇엇다"는 말이 씨어 잇는 것을 처녀시대에 읽은 일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의 참뜻을 오늘날 내가 직접 체험으로써 깨닷게 될줄이야 꿈엔들 생각하엿으랴![61]

위에 인용한 글들은 1930년대 후반에 나온 여성들의 현실 또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로부터 약 50년 전에 나온 베벨의 말—여성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이 전혀 틀리지 않음을 몸소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10년 전쯤인 1928년 여학교(경성여자상업학교) 졸업생으로 중국 광동

59 그런 점에서 어떤 사회적 자본도 없었으며 또 남성 동지 또는 남성 동반자라는 '붉은 연인'의 존재도 없었던 정칠성이 동시대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진정 남성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외로운 싸움을 한 것이라는 지적도 음미해 볼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노지승,「젠더, 노동, 감정 그리고 정치적 각성의 순간-여성 사회주의자 정칠성(丁七星)의 삶과 활동에 대한 연구」,『비교문화연구』제43권, 경희대 글로벌인문학술원, 2016, 38-9쪽 참조.

60 「거리의 女學校를 차저서, 戀愛禁制의 和信女學校, 制服의 處女 百四十名」,『삼천리』제7권 10호, 1935. 11.

61 許永淳,「一人一言(일인일언) (15) 주부와 시간」,『동아일보』, 1937. 6. 24.

사관학교 진학을 꿈꾸었던 여학생 김재은의 다음과 같은 말은 어디론가 흩어져 자취를 감추었다.

> 광동에서 사관학교를 마치고는 로서아 사관학교로 가렵니다. (중략) 작년 봄부터 비로소 사상방면에 서적을 탐독하게 되엇습니다. 山川菊榮의 저서와 팜푸레트를 만히 읽엇고『唯物史觀』『社會主義와 婦人觀』『베—벨의婦人論』『資本主義ノカラクリ』등과 기타 농촌문제 여자해방문제에 관한 서적을 읽엇습니다.[62]

사회주의의 시대가 낳은 붉은 여학생 김재은의 행로는 어떻게 펼쳐졌을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63] 그녀가 애독했다는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榮)는 조선 여성들에게 전하는「동양부인의 해방」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 적이 있다.

> "미래는 우리의 것임니다 다시말하면 부인과 노동자의 것입니다" 독일 사회민주당수령 "베벨"은 부르지젓슴니다. 우리는 그 빗나는 미래를 자손에게 남겨 주기 위하야 현재 이 암흑의 면사(面紗)를 찌저바릴 용기와 희생적정신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무산부인과 조선부인이 서로 손을 잡고 이 험한 길을 밟아 나아갈 때에는 그 단결한 힘만으로도 발서 승리는 절반이나 어든 것입니다.[64]

이 글은『동아일보』1925년 1월 3일자 5면에 남편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의 글「무산계급의 운동방향」과 나란히 실려 전면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시

62 「새봄마저 교문 나스는 재원 각 녀학교 줄업생을 차저서 (五) 여군인으로 활약 商女 소녀웅변가 김재은양」,『조선일보』, 1928. 3. 8.

63 그녀가 경성여자상업학교의 후신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초대 동창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는데 실제로 상해로 광동으로 그리고 러시아로 모험을 감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64 山川菊榮,「東洋婦人의 解放」,『동아일보』, 1925. 1. 3.

대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광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주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일본 자본주의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무산계급에 대한 착취가 한층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조선 무산대중 노동자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65] 따라서 일본과 조선 남녀 노동자들의 협력과 연대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야마카와 기쿠에가 인용한 베벨의 문장은 『여성과 사회주의』 제33판(1902)부터 책의 마지막에 수록되면서 유명해진 것으로, 원문은 "Dem Sozialismus gehört die Zukunft, das heißt in erster Linie dem Arbeiter und der Frau"(미래는 사회주의의 것, 다시 말해 노동자들과 여성들의 것이다)이다. 필자인 야마카와 기쿠에는(또는 조선인 편집자는) 베벨의 이 문장을 검열 탓인지 저본(영역본) 탓인지 '미래는 사회주의에 있다' 대신에 "미래는 우리의 것임니다"라고 바꾸어 놓았다.[66] 그런데 여기서 미래의 주인인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일본 독자들에게라면 이는 일본의 노동자와 무산계급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될 터이다. 그런데 이 글은 수신자를 '동양 부인', 조선인 여성으로 하고 있다. 야마카와 기쿠에는 "일본의 무산부인과 조선부인"이 서로 손을 잡는다면 "승리는 절반이나 어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의 무산부인'과 '조선부인'의 조합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 글에는 번역자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원문의 표기를 확인할 길도 없지만, '조선의 무산부인'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야마카와 부부는 일본 제국과 전쟁을 비판하며 식민지 사회주의자들과도 교류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일본의 발전 단계를 부르주아 혁명이 완성된 사회로 바라보았고 따라서 일본에 무산계급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67] '동양'으로 뭉뚱그려놓고 있으나 이 글에는 이러한 발전 단계의 차이에 대한 또는 민족

65 山川均, 「무산계급의 운동방향」, 『동아일보』, 1925. 1. 3. 그는 조선 노동자들은 "일본 내지의 노동자와 동일한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가 되지 안흘 수 업다", "일선(日鮮)의 무산계급이 분리치 못할 경제적 이해의 일치로 융합"되었다고 쓰고 있다.

66 뉴욕에서 발간된 De Leon의 번역본 *Woman Under Socialism*은 마지막 문장을 다른 역자들과는 달리 'Socialism'을 삭제하고 'Ours is the future'로 적고 있다.

67 송연옥, 「야마카와 기쿠에와 황신덕: 제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여성 리더의 만남과 엇갈림」, 『여성과 역사』 제15호, 한국여성사학회, 2011.

차이에 대한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승리' 또한 제국-식민지 관계 안에서 제국의 자본주의 착취 체제에 편입된 조선 여성들의 협조를 수반하는 일본 계급혁명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된다.

야마카와 기쿠에는 선구적인 일본 여성 사회주의 이론가 및 운동가로 수많은 사회주의 서적을 번역했으며[68] 일본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정초하고 또한 1980년 90세로 사망할 때까지 일본의 여성운동과 교육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그의 저서『무산계급의 부인운동』은 1930년 강영원(康永源)[69]의 번역으로 영창서관에서 간행된 바 있고 그 밖에도 그의 저작들은 자주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인용 또는 언급되었다.[70] 위의 야마카와 기쿠에의 글처럼 소중한 첫발을 내디딘 일본 여성과 조선 여성의 연대가 결국 피상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국 남성 사회주의자(베벨 등)들을 매개로 한 여성 사회주의 운동 또는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에 대한 진지하고 반성적인 성찰이 부족한 데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엥겔스 이래 거의 모든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의 교의가 된 '여성의 공적 생산영역 진출과 사적인 영역의 공산화'라는 원칙이 실제 여성이 영위하고 있는 생활과 현실 즉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질문되고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검토해 본 이런저런 실천들과 시도들-통일성이나 철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지언정-은 저 입론이 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물음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68 베벨의 책 이외에도 E. 카펜터의『여성 중심과 동성애』, 레스터 워드의『여성중심설』, 존 리드 등이 쓴『여명기의 러시아』, 래퍼포트의『사회 진화와 여성의 지위』, 콜론타이의『부인과 가족 제도』 등을 번역했으며,『부인 문제와 부인 운동』,『무산계급의 부인운동』,『일본의 민주화와 여성』,『부인 해방론』,『일본 부인운동 소사』 등의 저서를 남겼다. 야마카와 기쿠에 전집(『山川菊栄集』)이 전 10권으로 출간되어 있다(岩波書店, 1982).

69 강영원은 이밖에도『맑쓰평전』,『맑쓰사상과 그 생애』와『맑쓰사회학』 등을 쓰고『부인문제의 본질』(사카이 도시히코, 영창서관, 1930)을 번역한 인물이다.

70 「노동운동의 제1선에 立한 주세죽양」,『매일신보』, 1924. 6. 14 ; 尹聖相,「산아제한의 절규!! 선전과 실행이 필요」,『삼천리』 제5호, 1930. 4.; 안덕근,「모윤숙·나혜석씨의 연애관 비판」,『삼천리』 제10권 5호, 1938. 5.

4 결론

사회주의 저작의 고전이자 일찍이 유물론적 여성해방론의 선구로서 널리 알려진 아우구스트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는 동아시아에서 『부인론』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1920년대 이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번역되었다. 당대에 이 책의 영향력을 거론하고 인용하는 글들과 증언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그간 한국어 번역본들에 대한 파악이 시도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 글은 각각의 번역들과 관련한 기본 사실들 즉 역자, 저본, 역본의 특징, 출간 사항, 역본들의 상호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의 최초 완역본에 이르기까지 총 아홉 종의 한국어 판본이 확인되는데, 이는 단일 저서의 번역본으로서는 특히 문학서가 아닌 사회주의 서적의 역본으로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분만을 선택하거나 발췌하는 부분 번역으로 신문 잡지에 연재되는 일반적인 당시의 번역 형식이 아니라, 단행본으로도 대여섯 종이 나왔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저명한 사회주의 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저 자체가 1879년 처음 등장한 이래 수십 년에 걸쳐 수십 종의 개정판이 나오고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만큼 다양한 저본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하나의 배경이 된다. 실제 한중일의 번역은 독일어 원전과 영역본, 일역본, 중역본 그리고 조선어 역본이 여러 층위에서 상호 텍스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특히 검열의 시대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도 그에 응전하는 번역 실천들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최초의 번역인 배성룡의 『부인해방과 현실생활』은 베벨의 저서 2부 '현재의 여성'을, 이어 나온 신종석의 『과거 사회의 부인』은 1부 '과거의 여성'을 각각 초역(抄譯)한 것으로, 베벨과 『여성과 사회주의』 그리고 역자를 표면에서 삭제했으나 경찰 당국의 '사상관계출판물' 목록에 오르게 된다. 사실 이 번역본들은 일본에서 일찍이 나온 번역본들 특히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榮)의 완역본 『부인론』의 영향력에 비할 때 실제 결과물로서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검열을 뚫고 나온 파편들로서 일련의 맥락과 흐름을 형성한 번역 실천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의 전망을 다룬 『여성과 사회주의』 4부는 해방 직후 김삼불(金三佛)의 발췌 번역에서야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이 부분은 80년대에 나온 번역본들(선병렬, 이순예)에서도 삭제되었고, 90년이 돼서야 한국 최초의 완역본에서 담기게 된다.

한편 번역을 전후한 1920년대 초에서 1930년대 초까지 이 책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파생 텍스트들 또한 적지 않게 산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예외 없이 남성 지식인 또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베벨의 여성해방론이 적극적으로 전유 또는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결혼제도(일부일처제) 및 매음제도(또는 매매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남성들의 관심사가 더 많이 반영된 주제 선택이라는 문제와 함께, 이들이 '조선 여성'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여성 혐오의 언어를 감추지 않거나 시혜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베벨이 여성의 지위에 대해 쓴 '본원적 노예상태'라는 표현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결혼생활이나 현실을 확인하는 데에 줄곧 쓰이는 명제가 되곤 했다. 일본의 선구적 여성 사회주의자 야마카와 기쿠에가 '동양 여성의 해방'이라는 국가를 초월한 연대의 손짓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가 말한 '우리의 승리'란 피착취 피업압 상태의 '조선 여성'이 일본 무산계급 운동에 포섭되는 방식으로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귀결된다. 말하자면 당대 남성 사회주의자들 또는 일본 여성 사회주의자가 베벨을 경유하여 도출하고 제기한 여성해방의 쟁점들은 조선여성의 해방과는 일정한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백 년 전의 이러한 시도들과 실천들은 현재까지도 역시 '철저하게' 묻고 답해야 하는 여성 해방의 과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남성 사회주의자 지식인들이 선편을 쥔 번역 및 담론 장의 맥락과 논리를 재구성하는 데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는 가운데, 식민지 조선의 여성 식자층이나 독자층의 반응이나 여성해방 담론 및 실천에서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러한 번역 실천이 사회주의 담론 장에서 갖는 의미와 당대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명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아우구스트 베-벨, 배성룡 역,『부인해방과 현실생활』, 조선지광, 1925.

_____, 신종석 역,『과거사회와 부인』, 춘추각출판부, 1926.

_____, 金三佛 역,『부인론』 上·下, 민중서관, 1946.

아우구스트 베벨, 선병렬 역,『여성과 사회:과거·현재편』, 한밭출판사, 1982.

_____, 이순예 역,『여성론』, 까치글방, 1987.

_____, 이순예 역,『여성론』, 까치글방, 1990(완역개정판).

채만식,『인형의 집을 나와서(一名노라의後日譚)』,『조선일보』, 1933. 5. 27-11. 14.

『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신보』,『별건곤』,『삼천리』,『신여성』,『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朝鮮出版警察月報』

단행본

박노자,『조선 사회주의자 열전』, 나무연필, 2021, 191-228쪽.

이종영,『성적 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2001, 227-232쪽.

천성림,『산업화가 유교체제하 중국여성의 지위에 미친 영향』, 집문당, 2005, 197-198쪽.

잭 홀런드, 김하늘 역,『판도라의 딸들 여성 혐오의 역사』, ㅁ, 2021, 254쪽.

조세핀 도너번, 김익두·이월영 역,『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3, 142-143쪽.

Gemkow, Heinrich, *August Bebel*, Leipzig: Bibliographisches Institut, 1986, p.54.

Olohan, Maeve, *Translation and Practice Theory*, Routledge, 2020.

논문

김경일,「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한국문화』 제36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249-295쪽.

김기승,「裵成龍의 政治.經濟思想硏究 : 民族協同戰線論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김현주·조정윤,「《신생활》 이후의 신생활사—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계열 대중출판운동의 편린」,『大東文化硏究』 제120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2, 135-167쪽.
노지승,「젠더, 노동, 감정 그리고 정치적 각성의 순간-여성 사회주의자 정칠성(丁七星)의 삶과 활동에 대한 연구」,『비교문화연구』 제43권, 경희대 글로벌 인문학술원, 2016, 7-50쪽.
박종린,「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社會改造の諸思潮』의 번역」,『역사문제연구』 제20권 1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317-351쪽.
소산산,「『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와『부인론』의 관련양상 연구」,『현대문학이론연구』 제5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47-375쪽.
송연옥,「야마카와 기쿠에와 황신덕: 제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여성 리더의 만남과 엇갈림」,『여성과 역사』 제15호, 한국여성사학회, 2011, 159-178쪽.
유찬근,「'합리성'의 합리화와 지식인의 생존전략 : 배성룡, 근현대 지식인의 '주변적 전형'(1922~1957)」,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伊藤セツ, 王宓,「20世紀初頭欧米女性解放思想の日本・中国への伝達の過程: August Bebel: Die Frau und der Sozialismusの場合」,『昭和女子大学大学院生活機構研究科紀要』 第8號, 1999, pp.31-48.

기타

이공순,「[발굴 한국현대사 인물69] 배성룡」,『한겨레신문』, 1991. 5. 31.
천성림,「구국과 여권 사이에서-중국 페미니즘 100년사」,『여성신문』, 2017. 7. 23.
郭聪, 严程极,「翻译家夏衍的"译言译行」, 中国社会科学网, 2021. 9. 20.

Abstract

August Bebel's *Women and Socialism* in Korea: Translation and Gender Dynamics

Kim, Mi-Ji(Dankook University)

The book Woman and Socialism by August Bebel, known in East Asia as *On Women (Buin-ron)*, is a socialist classic first published in 1879. In Korea, abridged translations of its second and first parts appeared in the mid-1920s, with nine translation attempts made before the first complete Korean edition in 1990. These translations, connected with Japanese, Chinese, and English editions, symbolized a meaningful effort amidst ideological censorship.

Between the 1920s and 1930s, derivative texts influenced by the book were written by male socialists, focusing on issues like monogamy and sex labor but neglecting structural gender problems under capitalism. These writings often revealed misogyny or paternalism, limiting their engagement with women's liberation. Although regarded as a "textbook of liberation" by women intellectuals, the book failed to inspire broader discussions on emancipation, reflecting the harsh realities faced by Korean women.

Japanese socialist Yamakawa Kikue, the first to fully translate *Woman and Socialism* in East Asia, extended solidarity to Korean women, albeit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ir liberation required alignment with Japan's proletarian movement.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incomplete translation practices and solidarity efforts from a century ago hold significance as they continue to evoke unresolved questions about gender and women's liberation.

Key words: Socialism, Theories of Women's Liberation, translation practice, censorship, *Buin-ron(On Women)*, Bae Seong-ryong, Shin Jong-seok, Kikue Yamakawa

논문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6.
게재확정 / 2024.12.08.